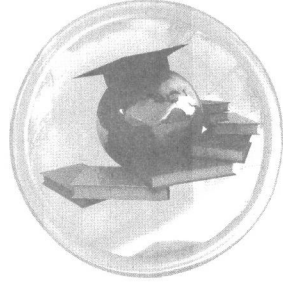


해외

고등교육동향

세계 유학생의 선택이 변화하고 있다

박민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화지원팀



거대 산업이 된 고등교육 국제화

고등교육 국제화는 전 세계적으로 거대 산업이 되고 있다. 외국 유학생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800억~900억 달러 정도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고 하니 각 국 정부가 외국 유학생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정도이다. 더 많은 자국 학생을 외국으로 보내고 외국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앞다투어 정책과 함께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과학자 양성을 위하여 2014년까지 7만 5,000명의 브라질 학생을 세계 우수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식사회 구축을 위하

여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대거 투입하고, 국가 예산의 12%를 고등교육 분야에 배정할 정도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한국 역시 Study Korea Project를 통해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유학생 이동 양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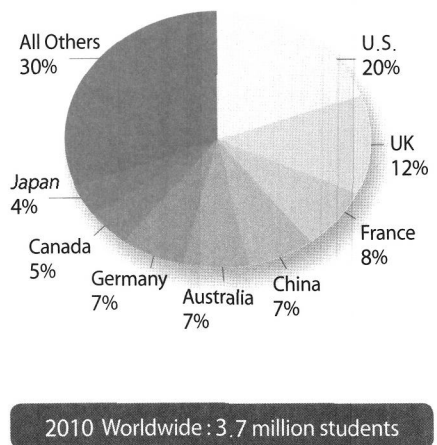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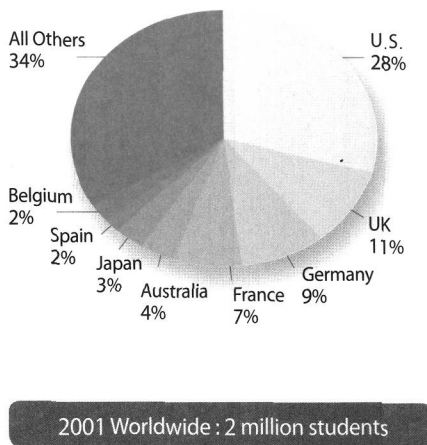
고등교육 수학을 위해 자국을 떠나는 학생의 수가 2000년에 200만 명을 웃돌던 수준에서 2011년 거의 4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해외에서 수학하

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전통적인 유학국가 외에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추세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따른 경쟁이 이어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국제교육기구(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는 최근 학생이동(Student Mobility)과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Project Atla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국제 고등교육 학생이동의 중심이 전통적인 몇몇 주요국가에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2001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

의 학생이 이동하였는데 이동한 학생 중 미국(28%)이 가장 많았으며 영국(11%), 독일(9%), 프랑스(7%), 호주(4%)가 그 뒤를 이었다. 2010년의 경우, 전체 학생이동 수는 370만 명으로 2001년 대비 1.8배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의 빈도수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순으로 거의 흡사하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특징적 변화는 미국 점유율의 하락세이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며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숫자는 가장 크지만, 2001년의 28%에 비하면 2010년에는 20%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Source : Atlas of Student Mobility
* <http://www.iie.org/projectatlas>

[그림 1 _ Top 8 Host Countries of Globally Mobile Students, 2001 & 2010]

핵심적 변화는 ‘신흥 국가’의 출현이다. 2010년도의 표를 보면 갑자기 등장한 국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국가경쟁력 급상승과 함께 중국 유학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도 조사에서 별다른 세를 보이지 못했으나, 중국은 2010년 조사 때 무려 전체 학생이동 중 7%를 수용하며 국제 고등교육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학생들이 서구권 국가를 선호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시아 국가가 급격한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2001년도의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 국가 중 딱히 주목할 만한 국가가 없었으나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 이동하는 유학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이 배경에는 중국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 있으며, 현재 유학생 유출과 유입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2010년 조사 시 4%)은 꾸준히 학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나 중국의 약진에 비하면 답보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2010년 4%의 학생이 이동했던 호주는 2010년에 7%의 학생이 유학국가로 선택하며 5위에 등극하였다. 캐나다 역시 2010년도 조사에서 5%를 기록하며 국제 고등교육 학생이동의 주요 국가로 떠올랐다.

이렇듯, 전통적인 유학 선호국가 외에 중국과 캐나다 등의 출현으로 학생이동 선택 국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IIE의 경영부회장인 Peggy Blumenthal은 교육 허브의 수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고 평했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유학 선호국가 외에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대안을 찾아

학생이동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미국, 영국 등의 서구권 국가에서 중국, 캐나다와 같은 신흥국가로 그 방향이 옮겨진 데에는 유학 조건이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선택의 양상이 달라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인도 학생들의 이동 형태도 한 예로 들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의 비자발급 제한, 인종에 대한 편협한 시각 등으로 최근 해당국의 인도 유학생 비율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이들은 좀 더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싱가포르나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더 많은 수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후발주자인 이들 국가가 유학생에게 좀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미국이나 영국 대신 다른 국가를 찾는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2009년에 50만명 이상의 유학생을 파견할 정도로 수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2010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이어 유학생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4번째 국가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섰다. 국제교육컨설팅회사인 Illuminate Consulting Group은 이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결과로 향후 중국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학생이동의 흐름에도 또 다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후발국가의 유학생 유치 노력에는 영어 강의도 빠질 수 없다.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유학생 유치 및 고등교육 국제화의 강화를 위한 영어강의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학, 경영학 분야의 영어강의 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IIE의 Blumenthal 경영부회장은 영어가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으며 영어는 이미 'lingua academica'라고 이야기 하였다.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강의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제화에 관심이 있는 자국 학생의 선택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유학생 유치 및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영어강의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교원 외에는 강의내용의 정확한 전달, 학생과의

심층적인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모국어로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의의 같은 경우, 영어강의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 대학은 영어강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영어강의 실시 여부를 교원 채용 및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양질의 유학생 유치와 고등교육 국제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단순 영어 강의 시행뿐만 아니라 영어강의의 내실, 효율성, 학습 성과 및 만족도에 주목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유학생 유치를 희망하는 비영어권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고등교육 국제화

Project Atlas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학생이동의 양상은 매일같이 변화하고 있다. 영원할 것 같은 미국의 우세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신흥 강국이 갑자기 등장하는 등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쟁터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등교육 국제화를 향한 장기적인 국가 정책 및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국학생의 국제화를 위한 투자

와 효율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이 융합된 정책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국제화는 멈추어 있지 않고 항상 진화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